

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 비상

교육부, 학생부 작성 마감 두 달 앞두고 3학년 수작업 지시 코로나19로 일정 빠듯... 교사들 "업무 부담 가중" 불멘소리

교육부가 수시모집 관련 학생부 작성 마감시한을 두 달 앞두고 학생부 정정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일선 고교에 비상이 걸렸다. 현 고3과 학부모들은 가뜰이나 코로나19 사태로 대입전형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일선 고교에 이런 지침을 담은 '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위한 학생부 정정 방법 안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대학에 보내는 학생부에서 학교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 당국이 사실상의 고교 서열화를 인정하면서 대입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포함한 부분이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학사일정이 대거 밀리면서 대입일정이 빠듯해진 가운데

이번 지침이 학생·학부모들의 불안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대입을 앞둔 모든 3학년 학생의 학생부를 1~2학년 기록까지 일일이 확인해 수작업으로 수정해야 하는 데다가 결재와 심의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부의 정정 기한은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인 9월16일까지지만 지역 일부 고교에서는 아직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시작도 못한 상황이라는 게 교육청의 전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블라인드 처리'가 학교 현장의 업무 과부하만 부추기는 꼴이라는 불멘소리가 나온다.

광주지역 한 고3 담임교사는 "매일 시간을 쪼개 등교 연기로 늦어진 상담을 하고 매 시간 복도와 화장실, 급식실에서 방역 지도를 하느라 바쁘다"며 "수시 지원 상담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도 봐줘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학생부 수정 지시는 엄청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학생부 정정 지침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부 정정을 두고 지역명까지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도 일고 있다. 지역 이름 등을 기재했을 때 후광효과를 차단할 수 있는지 모호한 지침이 있고, 어차피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는 것이다.

학생부 관리를 담당하는 한 교사는 "블라인드 처리 지침이 명확한 점이 있어 어디까지 수정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라며 "8월 기말고사 출제와 수시 상담, 수능 원서 접수 준비 등을 앞두고 수정해야 할 분량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이 하달 된 후 지역 이름 등 특정 표현에 대한 허용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치인 만큼 수험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호남대, 유학생 여름방학 알파 강좌 '풍성'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가 최근 여름방학임에도 코로나19 사태로 고국에 가지 못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이 '삼계탕 만들기'에 앞서 즐거운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호남대 제공)

광주교육청, 학생·학부모·교직원 SNS 교육 홍보 활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을 상대로 한 광주교육청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교육 홍보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플러스 친구, 유튜브, 블로그 등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SNS 팔로우는 4만 46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2011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페이스북 팔로수가 3만 4200여명으로 가장 많다. 지난해 말 200여명에 불과했던 유튜브 팔로우는 4100여명으로 7개월 만에 3900여명 늘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팔로우는 전국 8개 특별·광역시교육청 중 2위, 3위, 4위를 기록할 정도로 구독률이 높다.

그동안 SNS에서 가장 인기 높은 콘텐츠(댓글·공유 반응도 기준)는 코로나19 관련 수학여행 폐지, 개학 전 코로나19 대응법, 건강한 겨울방학 보내기, 원격과 등교수업 병행 조치 알림, 2021학년도 수능 일정 변경 등이다. 코로나19와 건강, 수능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관심사인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4차산업혁명 선도 거점대학 우뚝 서겠다"

최일 동신대 총장 취임 2주년

"대학 혁신지원사업 최우수

메이커스페이스전문랩 선정

취업률 높고 교육비환원율 1위

학생 글로벌 경쟁력 높이겠다"



최일(65) 동신대학교 총장이 최근 취임 2년을 맞아 "교육혁신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광주·전남 거점대학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지난 2년 동안 동신대가 지역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고, 대학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고등교육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발전계획인 '동신 Vision 2030'을 선포하고 ▲에너지 신산업 ▲천연물 바이오 ▲사회서비스 등 3대 학문 분야 특성화, ▲인성교육 ▲창의융합교육 ▲활동 및 실천중심 교육 ▲글로벌 역량교육 등 4대 교육방법 특성화를 동시에 추진했다.

특히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 사업 선정,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최우수 A등급, 2년 연속 취업률 70% 돌파, 2019년 혁신도시 공기업 정규직 13명 취업 등의 성과를 거두며 강한 지방대학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각종 재정 지원 사업 석권=올해 동신대는 교육부의 '2020년도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내년까지 매년 10억원, 총 2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IoT(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스마트에너지 산업 분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동신대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 중

인 스마트에너지산업의 선두 주자로 나서게 됐다. 또한 호남 권역을 대표 할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분야에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올해 22억원을 지원받아 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향후 5년간 70여억원의 사업비로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동신대에너지리서터 1층과 7층에 총 1,404㎡ 규모의 '메이커스 에너지 FARM'을 구축해 전문 메이커를 양성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1유형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는 광주·전남 사업대학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최우수 A등급'에 선정됐다. 최우수 등급과 함께 '지역강소대학'으로 선정되면서 17억 27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로 받게 돼 2020년 사업비가 48억 2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2년 연속 취업률 70% 돌파 '취업에 강한 대학'=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동신대의 2018년 12월31일 기준 취업률은 70.4%다. 이 취업률은 교육부가 대학 알리미 사이트에 공시한 취업률 중 가장 최근 자료다.

2017년 70.9%에 이어 광주·전남 일반대학(졸업생 1000명 이상)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취업률 70%를 넘겼으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중 8년 동안 취업률 1위 자리를 차지했다.

공무원 사관학교로서의 명성도 이어가고 있다. 2020년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에 9명이 합격했으며 지난해 소방공무원 18명, 경찰공무원 8명을 배출했다. 군사학과는 올해 27명을 포함해 2014년 학과 설립 후 졸업생 전원인 7급 공무원 수준의 소위로 임관했다.

이와 함께 동신대는 2021학년도 신입생들의 장학금 혜택을 더욱 늘린다. 기존 수능 평균 등급 성적 4과목 평균 6등급까지 지급한 면학장학금과 학습보조비를 6.5등급까지 확대했다.

학생부 성적장학금도 부활한다. 학생부 반영 과목 성적의 평균이 1~5등급 이내인 학생까지 성적에 따라 최대 2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4학기 동안 학기당 40만원의 학습보조비를 받는다. 2018년 동신대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60.6%로, 사실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다.

동신대는 등록금 수입 대비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교육비 비율(환원율)도 2019년 정보 공시 기준 205.0%로, 광주·전남 일반사립대 중에서 단연 1위다.

최일 총장은 "앞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해 학생들의 취향 및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교육력 강화

전남교육청, 초·중, 중·고 통합 운영 확대 추진

전남교육청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초·중, 중·고 통합학교 운영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소규모학교가 지속적으로 늘어 도내 전체 초·중·고교(877교) 가운데 43.3%(380교)가 학생수 60명 미만이다.

도 교육청은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소규모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급이 다른 2개 학교를 통합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활용하는 '전남형 통합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남 도내에는 12개 학교가 초·중, 중·고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학교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도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학교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순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아닌 학교 공간

혁신, 무한상상실 등이 구축된 미래형 학교, 작지만 강한 '강소학교'로 육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 초등·중등 지각증에 의한 교원 배치의 한계, 과중한 업무로 인한 복수자격 교원의 겸임 기피, 통합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미비 등이 통합학교 운영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21일 순천에서 열리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호남권 시도교육감 간 간담회를 통해 통합학교 운영 확대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